

월요 광장

뇌를 잘 쓰는 교육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학생들과 관련하여 밝고 기쁜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다. 학교폭력, 극심한 스트레스, 자살 등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나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한 교육,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우리가 처한 교육현실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그 가치를 회복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 가치는 바로 이것,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 2조에 명시한 흥의인간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은 흥의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

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나 교육계가 이 교육 이념을 제대로 구현한다면 학교 문제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좋은 대학에 가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강조하는 풍조가 훨씬다.

소위 명문대학을 가지 못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여긴다. 이러한 세태를 바꾸지 않는 한 교육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흥의인간은 무엇인가? 바로 얼이 큰 사람, ‘어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바로 ‘어른’을 만드는 것이다. 자녀와 부모, 학교가 크게 방향하는 것은 바로 ‘얼’이 빠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 목적은 바른 ‘얼’을 지닌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 있다.

얼이 큰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뇌를 잘 써야 한다. 우리의 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으며,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대로 실현해낸다.

뇌가 무엇을 창조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뇌를 잘 쓰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뇌의 완전함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뇌의 완전함이나 무

한한 잠재력을 불신해 왔다.

남보다 돈을 많이 벌고, 경쟁에서 이겨 성공하는 데 뇌를 쓰는 것은 뇌를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흘로 똑똑한 뇌가 아닌, 함께 행복한 좋은 뇌를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 우리 아이들의 뇌가 아닌 무한한 가치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뇌를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뇌를 활용하는 사람은 행복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데 어른보다 더 능숙하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잘 웃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청소년 인성교육의 첫 걸음은 뇌를 잘 활용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을 담당할 청소년멘탈헬스인성협회가 24일 발족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협회는 한민족 고유의 전인교육, 인재상인, 흥의인간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뇌과학 기반의 인성교육이라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뇌를 알고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뇌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향민 정신을 가진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뇌가 무엇을 창조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뇌를 잘 쓰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뇌의 완전함을 믿어야 한다. 철학 부재, 이론 위주, 과학적 체계화 없

는 인성 교육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흥의인간 인성교육, 두뇌 창의성을 높이는 인성 교육, 21세기 뇌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을 한다. 이는 체험형 인성 교육이라 교육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어린이 및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끌찌(5년 연속), 그리고 초·중·고 학생 전체 668만 명 중 105만 명이 정신 건강에 문제를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청소년 자살 충동 4명 중 1명이라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청소년 정신 건강을 개선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흥의정신에 기반을 둔 뇌교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여러 나라가 국제뇌교육협회에 뇌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뇌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사례를 보고 자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뇌교육이 외국에서 각광받는 것도 좋은 일지만,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만큼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협회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지 통제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전교조 광주지부도 “교육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만 드러난 한계에 실망한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이 과거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데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단체의 지지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장 교육감의 재임 3년 동안 광주 교육의 난맥상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끊임없는 교육비리와 사학재단과의 갈등, 학생 성적 저하, 고교 강제 배정, 오락가락 행정, 제 식구 감싸기 등은 진보 교육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이념적 틀에 안주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난맥상은 일방적 교육행정, 다시 말해 소통 부재가 주된 요인이다. 장 교육감은 진보단체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겸허히 새기고, 열린 자세로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연말 음주운전 단속 일별백계 의지 보여야

연말을 앞두고 음주 뺑소니로 인해 ‘코리안 드립’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을 수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50대 남성이 숨졌다. 참으로 애통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높여야 ‘도로 위의 살인’에 다름없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자괴감이 든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고귀한 꿈마저 앗아가는 무서운 죄악이다. 그런데도 좀처럼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술문화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때문이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바로잡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흥청거리는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출근길 단속도 병행해 음주운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연말 음주단속이 통과의례가 아니라 는 것을 강력한 처벌 의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無等 鼓

고(故) 공옥진 여사는 ‘1인 창무국’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아버지 공대일과 김연수 명장에게 소리를 배우고, 임방울창극단 등에서 활동했던 그녀는 무엇보다 뛰어난 뮤지컬 연기로 일품이었다.

그녀가 서울무대에 등장한 건 1978년이었다. 병신춤과 1인 창무극 ‘심청가’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후 미드 링컨센터에서 동양인 최초로 단독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같은 해 또 하나의 공연이 첫 선을 보였다. 남사당쾌였던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작고)가 만들어낸 공연은 전통에 과격이 더해져 많은 화제를 모았다. 민속학자 심우성이 장구, 북, 징, 꽝과리 등 4가지 악기로 구성된 공연을 ‘사물놀이’라 이름지었다.

같은 해 역사적인 두 공연은 모두 한 장소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공간그룹 사옥 지하에 위치한 소극장 ‘공간 사옥’이다.

공간 사옥은 한국의 대표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이 1971년 설계한 건물이다. 한국 현대건축 1세대로 꼽히는 그는 서울을 꿈꾸며 주경기장, 오사카 EX-

PO 70 한국관 등 수많은 건물을 설계했다. 특히 공간 사옥은 한국 현대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건물이다.

최근 공간 사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소유주인 공간그룹이 부도를 내자 재권단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공간 빌딩을 경매 물건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문화계는 공간 사옥이 단순한 부동산

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문화’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축가 승효상과 김원,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 등은 기자회견에서 사옥의 보존을 촉구했다.

김수근문화재단은 22일 공간 사옥의 보존과 공공화를 위해 소셜펀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기부 예정금액이 10억 원을 넘어섰고, 100억 원을 모금하는 게 목표다.

공간 사옥은 꼭 서울의 문재만은 아니다. 우리가 경제 논리에 휘둘리는 사이 지역에도 많은 ‘공간 사옥’이 아쉬운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논의가 전국의 ‘공간 사옥’을 한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김미문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법조칼럼

변호인이 된다는 것



임정훈
변호사

신분제라는 절대적 제도가 사회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던 시절, 그때도 법률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신분제에 따라 문맹의 수준이 결정되고 권리와 의무의 정도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문맹률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법률의 자대를 들이대며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을까? 이때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통은 또한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

조선시대에 문맹률은 5%였다. 어려운 법률은 모두 한자로 이루어졌고 배우지 못한

기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그 성공의 서막을 알리며



오정현
광주전남혁신사업단 개발사업부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로마제국에서 유럽 곳곳으로 연결된 사통팔달의 도로시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불리던 로마의 전성기 때 로마 경제적, 문화적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소한 남도에서 모든 길은 나주로 통

한다.”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로마의 전성기처럼 경제적, 문화적으로 호남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혁신도시 개발 담당부처으로서의 자신감과 자부심의 표현이다.

실제로 ‘전라도(全羅道)’가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것처럼 나주는 예부터 호남의 중심이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건설이 호남 발전의 구심점이 돼 과거 나주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다. 확신한다. 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실 없는 허언이 아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Hot(핫)’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단연 최대 도시면적을 갖춘 초광역 신도시급 사업지구로,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4개 분야로 특화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지난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가고 있다.

혁신도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중앙호수 공원은 향후 혁신도시 내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콘텐츠가 일어나는 중심공원 역할은 물론 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산강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배매산과 가로수에 물들어가는 혁신도시의 늦가을 정취에 빠져 잠시나마 감상에 젖어 본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공 과정을 현장의 일선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감회가 새롭다. 호수 위에서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가 물속에서 쉼없이 밭을 움직이는 것처럼 혁신도시의 우아하고 성공적인 행태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수확의 계절 가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흘리고 있는 땀방울과 이 보이지 않는 밭길질이 밀려들어 백조처럼 멋지게 비상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미래를 그려본다.

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면 서행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준수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이며 정말 위험하기 짙이 없는 도박적 발상이다.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도 필요하지만 보행시 차도 앞 일시정지, 도로에서 뛰지 말고 걷기 등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보행자들의 높은 교통질서 의식이 필요하며 올바른 보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양림로

후진국형 교통사고 무단횡단, 근절 대책 시급

길을 가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선에 간혀 오도 가도 못하는 보행자를 흔히 볼 수 있다. 도로 상황이나 교통여건이 나빴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보행자들은 가까운 육교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기 쉬운데 조금 빨리 가려다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무단횡단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늦은 시간 축객에 의한 위반이나 새벽 시간 대 노인들에 의

해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총 15만 2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6263명이 사망하였으며, 15만 3000여 명이 부상한 사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43%, 전체 교통사고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후진국형 무질서 행위이다.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주요인인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는데 문제가 있다. 여유가 없다거나

社說

진보교육단체마저 비판한 광주교육행정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진보연대, 전교조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진보교육단체들이 장애국 광주시교육감의 재임 3년간 교육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미숙한 행정행위, 소통 부재, 이해관계 조절 실체 등은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 22일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열린 ‘진보교육 3년을 돌아보며’ 토론회에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무상급식을 예로 들며 “시교육청이 쟁급입체로 청소년 정신 건강을 개선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흥의정신’에 기반을 둔 뇌교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여러 나라가 국제뇌교육협회에 뇌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뇌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사례를 보고 자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뇌교육이 외국에서 각광받는 것도 좋은 일지만,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만큼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협회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자 여부도 ‘교육감을 믿고 따르는 교사들과 학부모를 지키주지 못한 수장’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진보연대 역시 “교육감이 조직을 의지대로 장악하지 못해 교육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이념적 틀에 안주하는 부물려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난맥상은 일방적 교육행정, 다시 말해 소통 부재가 주된 요인이다. 장 교육감은 진보단체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겸허히 새기고, 열린 자세로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교育폭력의 학생부 기자 여부도 ‘교육감을 믿고 따르는 교사들과 학부모를 지키주지 못한 수장’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진보연대 역시 “교육감이 조직을 의지대로 장악하지 못해 교육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이념적 틀에 안주하는 부물려 있다”고 비판했다.

</div